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갈라디아서 1장~골로새서 4장



92년도 세례식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갈 3: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갈라디아서 서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당시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의 중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칭의이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분은 1, 2장으로 역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생활속에 임한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 즉 어떻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말하고 있다. 전체 교회 앞에서 그의 사역을 말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앞에서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두번째 부분은 3, 4장이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구약과 복음진리와 함께 복음적 교리임을 옹호하고 있다.

세번째 부분은 5, 6장으로 실천적인 부분이다. 즉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또한 참된 성도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것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심령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의 대현장으로 불리워진 서신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의 기도제목

1.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능력있는 목양사역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
3.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혁신과 능력충만
4. 전교인 24시간 릴레이기도
5. 3월 개최되는 목회자 세미나와 주간성경공부
6. 교구와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7. 세계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1992

3

The Family Alter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갈라디아서 1장~골로새서 4장



92년도 세례식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갈 3: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 (주일)호흡이 있는 자

찬송40, 성경 시150:1-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150:6)

이 시편은 큰 환희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전체의 노래들의 결론이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기록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모든 시편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이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즐거움을 표현하여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입술만으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드릴 때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생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경험할 때 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 *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인종과 국가가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존재의미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가장 높게 아름답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1:3)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헌신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속죄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속의 말씀이 없이는 참다운 은혜와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시기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시기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죄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결코 평강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 * '은혜'란 말인 「카리스」는 헬라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말의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위해서는 참된 은혜의 체험으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3 (화)참된 그리스도의 종

찬송353. 성경 갈 1:6-10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1:10)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고 좀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며,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요란케 하여’(7절)라고 말합니다. 언제 요란함이 일어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입니다.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확신에 찬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성은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갈 4:17)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결코 복음의 다툼을 일으키며, 믿는자를 이간시키시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 * *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진리 그대로 불타는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거가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1 : 11, 12)

「계시」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란 말의 의미는 “뚜껑을 열다”라는 것입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되면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계시」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다, 새벽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숨겨진 것을 찾는 것으로써의 계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어자체의 의미처럼 계시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무엇인가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뚜껑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는 곧 하나님의 계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복음이 한 사람의 철학이나 사색이나 연구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 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속에 혹 사람의 뜻이 계시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 * 개신교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그의 말씀보다 앞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시간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 때에 참된 계시중심의 삶이 이루어 집니다.

5 (목)부름받은 자의 생활

찬송260, 성경 갈 1:18-24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1:24)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서 사도들에게 인정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광야생활 3년이 지난 후에야 바울은 베드로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심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방」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야기 한다', '어떤 일에 대하여 깊이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가 광야에서 만나며 교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얼굴을 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처럼 생생하게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을 듣는 말씀의 교제가 보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기쁨으로 증거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전파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사실임을 전파했습니다(16절). 이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충만한 말씀에 사로 잡혔습니다. 또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전도의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 *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상태는 아니였는지요. 오늘날에도 복음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속에도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2:10)

복음안에서 이루어진 사도들의 교제는 14년이 지나 예루살렘공의회로 모일 때에도 동일하게 교제의 악수를 나누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만나는 기쁨 속에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형제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은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다고 했습니다(7 절). 복음증거의 대상자가 다를 뿐이지 결코 복음자체가 대상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과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증거하는 복음이 동일합니다. 이 복음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는자마다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 * *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율법아래 복음으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영원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7 (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찬송465. 성경 골 2:11-21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20)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16절). 이 말씀은 인간에게는 전혀 의로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받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다(롬 4:25).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분깃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인증해준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런 고백이 없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의롭게 됨은 결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은혜 안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3:9)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점점 회의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책망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2-5절).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백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 사실을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 * *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병든 하인을 위하여 주님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겠나이다”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은대로 될지이다”라는 말씀을 백부장은 믿었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3:21)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 의문에 대해 많은 대답중 하나는 은혜의 삶을 통해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삶의 규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 * * 율법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마 19:16 이하).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3:28)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26절).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26절 은혜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입는 자가 된 것입니다(27절). 이 옷은 주님안에 있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째로,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28절). 네째로, 주님의 유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29절).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받느냐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냐는 것입니다.

* * 본문에서 옷이란 본래 로마인이 어른이 된 후 입는 옷입니다. 로마인들은 만 16세의 성인이 되면 「토가 비를리즈」(Toga Virilis)라는 몸 전체를 휘감을 수 있는 성인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은혜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4:6)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든든해 집니다.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더욱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이제 더이상 종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당하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이를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 사실에 증인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4~5절).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7절). 그 유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더불어 고난도 함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롬 8:17). 우리는 잠깐 동안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 * ‘아바 아버지’란 말씀 중 ‘아바’란 아빠란 뜻의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자녀와 아버지 간에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4 : 9)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그 날에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이야기 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세 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고 자신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노릇, 교인노릇, 구원받은 자 노릇 한 자들은 마침내 불법을 행한 자들로 낙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노릇’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써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 * *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풍성한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13 (금)사랑의 교제

찬송 255. 성경 갈4 : 12-20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4 : 12)

누구든지 사랑이 빠진 교제는 이해관계가 끊어질 때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갈라디아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12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15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아픔을 기꺼이 함께 하길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어서 바울의 선교사역이 온전하여 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갈라디아교인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서 이처럼 믿음이 떨어진 자는 없는지요. 그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되는 곳에 사랑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 * * 전도란 ‘교회갑시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일대일의 하나님과의 만남속에서 신앙고백이 터져 나올 때 전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4: 28)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한 자로써 항상 기뻐하며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마음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창 17:17). 이처럼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기뻐했습니다(창 21:6).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없이 웃는 웃음을 확신있는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의 표징이요, 전능하신분의 능력입니다.

* * 하나님은 약속의 때에, 약속하신 방법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요 감격의 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순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15 (주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찬송 492, 성경 갈5:1-12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5:1)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다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함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바울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12절). 그리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아예 다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 생활 속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 * * 율법주의가 우리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종이 되고, 빚진자가 되고,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참된 방향을 붙잡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능력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5:1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참 자유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즐기는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가 율법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기한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죄를 조금이라도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피하고 죄를 정복하라는 강한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5:14)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요 13:35).

* *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5:15)고 경고했습니다. 사나운 짐승 처럼 서로 찢으려 한다면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결국 공동의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기쁨을 나눕시다. 오늘은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그를 섬겨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삶을 위하여!

17 (화)성령으로 살자

찬송 427, 성경 갈5:16-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5:25)

본문은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삶과(16-21절) 성령의 소욕을 좇는 삶을 (22-26절)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5:17)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은 공존할 수 없고 서로 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어떤 것일까요?

성적(性的)인 방종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술수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을 때 술취함과 방탕에 빠집니다. 나아가서 육체의 소욕을 좇을 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원수 맺는 것 등의 사회적인 방종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을 좇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사랑과 사랑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5:22-23)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삶을 말합니다.

- * * 지금 우리 속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 나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와 정욕과 죄의 성품이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 주소서!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님의 의지에 굴복하여 살게 하소서!

기도 성령님의 의지에 굴복하며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교회학교의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충만 주시고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 이니라」(6:3)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잘못된 형제를 대하는 합당한 태도는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온유한 태도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6:1). 진정으로 그를 야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둘째, 그 잘못된 형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살피야 합니다.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 형제의 잘못에 대해 자신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의 잘못을 대신 감당하는 사랑의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의(義)를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곧 남의 잘못을 이용해서 나의 의(義)나 나의 영광을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6:3). 혹시 우리가 남의 잘못을 통해 자신의 의(義)만 나타낸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 * * 남의 잘못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우리는 아닙니까? 남의 잘못은 순전히 남의 것이 아니라 내 탓도 있습니다.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 의(義)를 자랑했다면 더욱 겸손히 '나도 아직 서지 못했노라'고 고백합시다.

19 (목)십자가만 자랑하자

찬송 417. 성경 갈6:11-18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6:14)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나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를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듯, 우리 또한 세상을 초월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민감하여 안절부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은 사람처럼 무관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과 자아가 다 죽었기에 이제 는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 *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하여 생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 이것은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몸에 불도장(火印)을 찍을 때 생기는 상처(흉터)를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아서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생긴 깊은 상처가 있는가 말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소서.
북한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1:4)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인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1:7).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 생활을 했습니다(갈 5:22-23).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자라났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합니까? 장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오늘부터 감사합시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교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 * 우리에게 복음으로 낳은 생명이 있습니까? 열매 맺어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더욱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21 (토)그리스도의 권위와 믿음

찬송 93. 성경 골1:9-23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1:19)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 뒤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골로새교회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이단과 헬라 철학적인 이단,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적인 이단 사상으로 혼란되어 있는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며 나아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천사를 숭배했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가르침으로써 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피조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사도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의 여러 가지 이단사상으로 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고, 그는 믿음으로 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불신앙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군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1 : 25)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해결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일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지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편지할 때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염려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고후 11:23-29). 이처럼 그의 관심과 염려의 대상은 자신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었고, 이를 위해 그는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 *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를 위해 전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을 위시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에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3 (월)하나님의 비밀

찬송 276. 성경 골2:1-5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2:3)

바울은 골로새교회 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 그리고 히에라볼리(골 4:13)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태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를 원했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단사상이 그들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수고와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여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교회가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보호하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성도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심령으로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 중심해서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고 사랑하여 나갈 때 이단들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견고해 지며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7)

여러가지 이단들로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어떤 건물이 한 층 두 층 올라가듯 보다 높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대로(골 1:7) 믿음의 활동에 보다 확고히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단들 중 특히 할례당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창 17:9-14).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참 할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할례당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한 할례는 구원과 관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11절, 롬 2:29). 예수님께서서는 할례없이 생활하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발미암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 *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이 가능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배우고 믿을 때에 이루어 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5 (수)세상의 초등학문

찬송 500. 성경 골2:16-23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20)

세상의 초등 학문은 유대의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학문이었으며 세속적이고 초보적인 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로새 성도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 학문의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교사들은 구약의 할례 뿐 아니라 절기 월삭, 안식일 등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므로 진리를 크게 왜곡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더라도 조금도 영육간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 * 오늘날에도 많은 학문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진화론, 합리주의, 상황윤리, 처세술 등 많은 이론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 침투하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보고 점검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하며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초등 학문을 디디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3:2)

본장 첫절에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과 함께 병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행동하는 것을 기본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위엿 것을 찾는 생활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위엿것을 찾되 대충 찾은 것이 아니라 전력투구하여 지속적으로 애쓰며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행위를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을 입은 성도는 항상 위엿 것을 생각하며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에 너무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삶을 게을리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7 (금) 옛사람들을 벗어 버리라

찬송 215, 성경 골3:5-11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3:5)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새명 얻은 성도들의 생활원리를 말하면서 먼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행위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 악의, 그리고 훼방 등으로 열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할 성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새마음을 가지가 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요 1:12). 그리고 이 세상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요 17:16).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빌 3:20).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 *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시기, 질투 등으로 실패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의 습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3:15)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새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입니다. 둘째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세째는 평강이요, 네째는 감사생활입니다.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항상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 속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심령마다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요 14:27). 또한 이 평강은 성령의 성결케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 현상입니다. 이 평강을 가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삶이 우리 생활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한 자답게 항상 찬송이 넘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새사람을 입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 * * 람세이는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곧 평강을 얻은 자입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29 (주일) 새사람의 가정생활

찬송 305, 성경 골3:18-4: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3:23)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부부간의 신앙윤리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결코 폭언이나 폭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과 복종은 부부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며 화목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이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댓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된 자는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여 세상을 향하여 악의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신앙윤리가 지켜지고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 * *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부부관계가 파손될 때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이처럼 병들때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오실 신랑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4:2)

본문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써야함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마7:7-11).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빌 4:6-7).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로 주어집니다. 첫째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둘째로 다른 것을 주십니다. 세째로 기다렸다가 후에 주십니다. 네째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좋은 것 중의 제일 좋은 것은 성령님(눅 11:13) 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인들에게 특별히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확신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 *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왕하 19:1-37, 20:1-11).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 건강, 자녀, 가정 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1 (화)주님의 일꾼들

찬송 370. 성경 골4:7-18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4:17)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주의 종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한 자였으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바울의 선교 업무와 형편을 다른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두기고와 같이 믿음과 신실성을 겸비한 자로써 업무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은 바울의 조력자들로써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고난을 함께 나눈 자들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특히 기도의 능력을 받아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써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써 바울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썼으며, 동시에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후세 교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특히 베드로와 바울 등등)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복음전파를 계속하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눅바는 유명한 여성으로써 앞에 언급된 바울의 동행자들과는 달리 가정에 거하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여러 방면으로 교회와 라오디게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와같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분담하여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동시에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루어 함께 주의 일을 힘썼습니다.

- * *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바울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개체로써의 신실한 역할 감당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정과 교회와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서론

골로새교회는 바울이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때 기록된 것이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다. 이 도시는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로서 동서로 연결되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무역로였다. 그러므로 동방의 신비종교와 잦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유대의 율법주의나 헬라의 철학적 사변종교, 또는 다른 이교 사상에 휩싸이기 쉬웠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바로 온전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창조의 주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음을 강조함으로 이단 사설로 부터 오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1:27) 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피조물의 주재시며 새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증거했다.(2:9, 10). 그리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내신다고 했다(1:15). 즉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며, 창세전부터 계셨고, 전능하시며, 지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1:16-17). 이처럼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전반부에서 증거하고(1:1-2:28), 후반부에서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3:1-4:18).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